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 긍정적 정서와 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  
Employe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연구조교 이희정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이숙현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Research Assistant : Lee, Hee-jung*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Associate Prof. : Lee, Sook-hyun*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mploye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ed on positive affect and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189 full-time employed mothers who had preschool children living in Seou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 1)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f employed mother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positive affect and life satisfaction.
- 2) The amount of social support was not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But, the more satisfied with social support employed mothers have received, the more frequently they felt positive affect and the mo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 3) The variables which explained the variances of positive affect dimension were mari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the age of employed mothers and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variances of life satisfaction dimension were marital satisfaction, the extent of husbands' sharing in child care and job satisfaction.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산업화 이후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여성 취업율의 급속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취업부부 가족은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화와 더불어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발전은 단순히 물질적 경제력 증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취업모의 삶의 질적 측면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현대사회에서 한 개인은 복잡한 사회생활속에서 동시에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에 여러가지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경우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 즉,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취업모는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많은 긴장과 갈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해서 다양한 자원을 얻게 되며, 성격 및 자아확대의 근원이 많아져 만족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긍정적 경험을 야기할 수 도 있다.

최근에는 취업모 역할수행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이고 과정적인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각 역할에서의 만족감과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역할수행의 구조적 측면인 역할의 수에 초점을 두던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각 역할수행에 따른 만족감과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지원이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은 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의 개념 중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며 성인 및 노인발달의 척도로써 건전함을 상징하는 종속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심리적 안녕은 삶에 대한 기쁨과, 희망차며 열정적인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쾌하고 좋은 감정을 일컫는다(Ross, Mirowsky & Goldsteen, 1990).

취업모의 주요 역할로는 아내 역할, 직업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기혼여성의 심리적 안녕과 관계된 변인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것은 결혼 만족도이다(Williams, 1988). 또한 직업 역할에서의 만족 역시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예측된다. 직업을 통하여 얻게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이 개인적 자아 존중감을 상승시켜 만족도를 높여주고 이는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지각하고 긍정적인 안녕감을 느낄 수 있다(Umberson & Gove, 1989).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공동 역할 수행자가 있게 되며, 이들은 역할기대와 행동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Hirsch & Rapkin, 1986). 따라서 공동 역할 수행자들의 사회적 지원과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은 관계될 것으로 여겨진다(Thoits,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자녀를 가진 취업모를 대상으로, 취업모의 여러 역할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 1.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은 역할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가?

1-1.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은 결혼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가?

1-2.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은 직업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가?

1-3.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은 부모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가?

#### 2.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은 사회적 지원과 관계가 있는가?

2-1.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은 사회적 지원의 양과 관계가 있는가?

2-2.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가?

### 3.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에 대하여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심리적 안녕

심리적 안녕이란, 행복이나 복지의 개념과 유사하나 사람, 시간,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명확히 규정짓기는 어렵다(김명숙, 1981). 역사적으로 볼 때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가 행복 즉, 심리적 안녕을 얻는 것이라고 간주하여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eudaemonia)이란, 관찰자의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외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상의 통제하에 적극적 생활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Diener, 1984).

한편, 학자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개념인 심리적 안녕은 도외시 한 채 인간의 불행과 스트레스에 대하여 주로 연구해 왔다(Diener, 1984). 그 후 심리적 안녕에 대한 연구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 객관적 지표에 대한 대안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심리적 안녕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삶의 질은 경제적 복지와 경제 발전을 나타내 주는 경제지표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고, 인간의 생활상태 및 복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지표에의 요구가 증대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사회지표는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적변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정책결정 및 사회, 경제적인 기록과 감시에 유용한 지표이다(현오석, 1975).

따라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심리적 안녕은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삶의 질에 대한 방법론적·조작적 정의로서 객관적 조건 및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입장과, 둘째로는, 정서적·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여 정의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진다.

첫번째 정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삶의 질 연구에서 의미하는 심리적 안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로 하겠다. 김명숙(1981)은 한국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삶의 질이란,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객관적 생활환경 조건과 이에 대한 평가로서의 주관적·심리적 만족을 뜻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은 개인의 사회적인 배경과 가치 체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절대량보다는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된 주관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김경동, 이흥구와 신도철(1983)은, 삶의 질은 물리적, 경제적, 신체적인 면과 함께 경제 외적, 심리적인 면에서의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면서 삶의 질의 향상은 외적 조건과 내적 만족의 향상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삶의 질 연구에서 주관적·내적 평가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삶의 질을 객관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인식하여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을 동의어로 보는 경우도 있다(이기영, 1984). Andrew와 Withey(1976)는 미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을 연구하기 위한 심리적 안녕 척도를 제시하면서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상태로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노유자(1988)는 삶의 질을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상태로 정의하여, 신체, 정신, 사회, 경제와 영적 영역에 따른 만족도로 개념규정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삶의 질 연구에서의 심리적 안녕이란, 객관적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정서적·주관적 평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Bryant와 Verloff(1982)는 심리적 안녕의 주요 요인으로서 행복감, 긴장 정도와 개인적 유능감을 들고, 이들 세 차원은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이에 영향을 주는 생활영역이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행복감은 결혼관계와 관련된 영역이었고, 개인적 유능감은 부모역할과 관계된 생활영역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957년과 1976년에 심리적 안녕에 대한 종단적 비교 연구를 한 결과, 1957년보다 1976년에 남성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가족생활을, 여성은 직업관련 주제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따른 역할기대의 차이가 단순한 성차보다 그들의 안녕을 판단하는 준거틀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을 심리적 안녕과 동의어로 사용하여 행복감, 생활만족도, 긍정적 정서를 포함시켰다. 그는 주관적 안녕의 특징으로, 주관성과 긍정적인 구인(construct)의 측정 및 삶에 대한 모든 측면의 종합적 평가를 들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정의로서 장재정(1987)은 인간생활에 대한 만족을 심리적 건강, 행복, 사기 및 개인의 적응 등으로 표현하여 각 용어를 생활만족을 나타내는 보다 넓은 개념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였다.

반면에, 심리적 안녕을 생활영역에서의 만족과는 구별되는 정서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Bradburn(1969)은 심리적 안녕을 정서적으로만 이해하였다. 즉, 정서는 어떤 사물 또는 상황에 부딪쳐 일어나는 갖가지 상념이며, 쾌·불쾌 등의 감각·감정으로서 긍정적인 정서는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두 가지 독립된 안녕의 구성요인이라고 보았다(Andrew & Withey, 1976, 재인용). 따라서 심리적 안녕이란,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와 비교함으로써 얻는 총체적인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Ross, Mirowsky와 Goldstein(1990)은 심리적 안녕이란 만족감이나 자아 통제감 및 유능감과 다른 구별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생활 영역에서의 성취로 인한 만족감이 심리적 안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좀더 제한적으로 심리적 안녕에 대한 정의를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수입이 같을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는 만족감이 낮을 수 있으나 심리적 안녕은 높다고 하여 만족과 안녕을 구별시켰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도 심리적 안녕과 구별되는 의미를 갖다고 하였다. 통제감이나 유능성은 감정이라기 보다는 신념에 가까우며,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지각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기는 하나, 이같은 지각과 정

서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안녕이란, 유쾌하고 좋으며, 상승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심리적 안녕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들이 심리적 고통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우울증,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우울증 점수와 불안 점수가 낮을 경우 심리적 안녕은 높은 것으로 해석하여 심리적 안녕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울증과 불안을 심리적 안녕 연구에 포함시키는 이유를 추론해 보면, 심리적 안녕에 대한 가정 자체를 부정적 정서의 부재로 인식하거나, 방법론적 측면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심리적 안녕의 연구가 초기화 단계이므로 알맞은 도구를 모색하다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우울 및 불안 변인을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밖에, 심리적 건강 혹은 정신건강이란 개념으로 심리적 안녕과 우울, 불안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차원적으로 연구하거나(Choi, H. K., 1992), 자아존중감(Baruch & Barnett, 1986a), 결혼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 직업 만족도(Chacko, 1984; Martin & Schermerhorn, 1983; Near, Smith, Rice & Hunt, 1984)를 심리적 안녕에 포함시켜 연구하기도 하였다(전영자, 1991, 재인용).

따라서 심리적 안녕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주관적 평가를 강조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심리적 안녕을 '삶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하고, Diener(1984)가 제시한 심리적 안녕의 특징을 포함시키는 두가지 하위 차원으로 긍정적 정서 측면과 생활 만족도 측면"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 2. 역할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아내 역할, 부모 역할, 직업 역할을 중심으로, 각 역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1) 본 연구의 심리적 안녕의 두 차원은 Diener(1984)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특징을 반영한다. 즉, 긍정적 정서 차원은 긍정적 구인(construct)에 대한 측정을, 생활 만족도 차원은 삶에 대한 모든 측면의 종합적 평가를 포함하며 긍정적 정서와 생활 만족도 차원은 모두 주관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서의 역할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sup>2)</sup>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결혼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

심리적 안녕의 차원과 관련하여, Baruch와 Barnett (1986a)은 결혼 만족도는 심리적 안녕의 여러 차원 중 기쁨(pleasure)정서와는 관련되나, 자아 존중감과 우울 차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즉, 결혼에 만족할수록 기쁨은 더욱 자주 느끼게 된다하더라도,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대거나 우울을 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혼 만족도는 부정적 정서, 자아 존중감보다는 긍정적 정서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취업한 여성에게 있어 결혼 만족도의 영향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Cleary와 Mechanic(1983)은 전업모와 취업모의 부모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의 영향을 함께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결혼 만족도의 영향력은 전업모와 비교해 볼때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취업 여성의 경우, 직업을 통한 만족이 결혼만족을 대체할 수 있을 때는 결혼 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취업 여성의 경우도 결혼 만족도는 여전히 심리적 안녕의 예측 지표라고 보는 연구들도 있다 (Benin & Nienstedt, 1985; Guelzow, Bird & Koball, 1991; Kandel, et al., 1985). 여성은 취업을 통하여 직업 역할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만족도의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고 전업주부 못지 않게 취업한 여성에게도 결혼의 질이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Aneshensel, Frerich와 Clark (1981)은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더 우울한 것은 취업모들이 아내 역할과 어머니 역할 및 직업 역할간 역할긴장을 경험하기 때문이며, 취업모에게도 결혼 역할의 수행과 결혼의 질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직업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

최근에는 취업 여성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는 취업 유무보다는 취업동기, 사회적 지원 여부와 취업에 대한 태도 등 상황적 변인을 고려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남편이 자녀양육과 가사일을 도와줄 때(Kessler & McRae, 1982), 부인의 취업을 부인 스스로, 그리고 남편이 선호할 때(Ross, Mirowsky & Huber, 1983), 사회적인 공헌이나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한 경우(정혜정, 1985)에 취업은 여성에게 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직업에 만족할수록(Cleary & Mechanic, 1983; Hanson & Sloane, 1992; Hirsch & Rapkin, 1986), 직업지위가 높고 근무시간이 짧을수록(Keith & Schaffer, 1980, 1983; Moen & Dempster-McClain, 1987) 우울 점수는 낮아지고, 생활 만족도와 정신 건강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녀 연령과 관련하여, 자녀 연령이 낮을 경우 취업모는 불안수준이 높다고 하였다(McLanahan & Adams, 1987; Moen & Dempster-McClain, 1987). 결론적으로, 취업 자체 보다는, 취업과 관계된 상황적·개개인적 변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3) 부모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

Baruch와 Barnett(1986b)은 직업 역할,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의 보상과 비용을 종합한 질적인 역할경험이 심리적 안녕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의 수입, 아내 역할의 질과 직업 역할의 질은 기쁨과 관련되어 있었으나, 어머니 역할의 질은 기쁨과 상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부모 만족도, 역할긴장, 경제적 상황과 아버지의 지원 등 과정적·주관적 변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mberson(1989)은 부모로서 만족감을 많이 느낄수록 심리적 안녕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Cleary와 Mechanic(1983)은 부모 역할로부터 느끼는 긴장을 심리적 고통의 중요

2)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을 긍정적 정서 차원과 생활 만족도 차원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인으로 취급하였으며,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부모 만족도와 같은 역할 만족도를 심리적 안녕의 각 차원과 관계된 독립변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결정인자로 보았으며, Goldsteen과 Ross(1989)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부담이 우울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진미정, 1993)에서도 어머니 역할의 수행부담이 우울과 불안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외국의 연구결과와 달리 자녀의 독립 이후에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및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감소가 부모의 심리적 안녕을 낮추게 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Ross와 Huber(1985)는 자녀로 인한 경제적 긴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버지의 경우는 지각된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주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교육수준, 연령과 어린 자녀의 존재가 우울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cott & Alwin, 1989). Ross와 그의 동료들(1990)도 자녀는 경제적 안녕 상태를 악화시키며, 끊임없는 보살핌이 요구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감소시켜서 결혼의 질과 심리적 안녕을 낮추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 3.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정의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Nath, Borkowski, Whitman & Schellenbach, 1991). 사회적 지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원 제공자와 수용자간에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발생한다. 본절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개념, 기능 및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회적 지원의 개념 및 기능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의는 크게 지원의 수용자를 강조하는 좁은 의미의 정의와 지원에서의 참여자 양측을 모두 고려하는 넓은 의미의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좁은 의미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oits(1982)는 사회적 지원이란 개인이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공받는 도움이라고 정의하여, 지원을 받는 수용자 측면에서 사

회관계망 구성원에 의해 얻게 되는 도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Shumaker와 Brownell(1984)는 사회적 지원을 수용자(recipient)의 안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적어도 둘 이상의 지원 제공자나 수용자에 의해 지각된 자원의 교환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이란, 두사람 이상이 지각한 교환의 개념과 이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원의 교환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원에 참여한 수용자와 제공자의 지각된 의도와 관계되므로 사회적 지원의 실제적 효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또는 중립적일 수 있다. 이같은 정의는 결국 사회적 지원에 적어도 둘 이상의 개인이 포함된다는 것과 지원을 주고 받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익을 얻거나 잠재적으로 댓가를 치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에서 교환되는 자원(resource)은 행동적 과업수행, 송환작용, 안내, 정보, 안락함, 친밀감, 돈, 봉사, 비전문가의 조언 등이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분류는 연구대상과 목적에 따라 달리 나누어진다. Schaefer(1982)는 보살핌과 존중을 표현하는 정서적 지원, 충고나 안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원, 그리고 돈이나 상품 또는 과업보조를 포함하는 도구적 지원으로 분류하였다(Shumaker & Brownell, 1984, 재인용).

반면에, Dean과 Lin(1977)은 표현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이라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은 표현적 지원을 더 중요시 하였다(김정희(역), 1991, 재인용). 한편, Collins 등(1993)은 저소득층 연구대상에 적절하도록 물질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네가지로 분류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원의 기능은 수용자의 심리적 안녕이 증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협력적 욕구를 충족시키며(Thoits, 1982), 자아 정체감을 유지·증진시킨다. Thoits(1982)에 의하면 자아는 서로 구별되는 정체감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의견, 태도, 신

념 등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되어 명확해 질 수 있으며, 이같은 사회적 지원의 기능과 관련된 자원은 자아의 측면과 관련된 송환작용과, 애매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모델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얻게 되는 예로는 속죄양, 명명하기, 고정화와 낙인찍기를 들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원의 수용자는 도움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도 자신에 대해 의존적이라거나 딱하게 여김으로써, 결국에는 부정적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킨다. 자아 정체감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개념이라고 보면, 자아 존중감이란 사회적 지원의 교환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 2)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안녕

사회적 지원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공통적으로 일치된 연구결과로는 취업모의 경우,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다(이연숙, 이순형, 유가효와 조재순, 1991: Hirsch & Rapkins, 1986; O'Neil & Greenberger, 1994). 이연숙 등(1991)은 기혼 취업 여성이 지각하는 가정·직업 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의 지원을 정서적 지원 및 가사협조 수준에서 조사한 결과, 남편의 지원 정도가 생활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원천이라고 보고하였다. Hirsch와 Rapkin(1986)은 간호사들의 심리적 안녕을 사회적 지원 제공자에 따라 분석한 후, 남편 및 친척의 지원이 직장동료나 상사 등의 지원보다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 및 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O'Neil과 Greenberger(1994)는 중산층에 속하는 102명의 아버지와 194명의 어머니들이 받은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남녀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이 직업 역할과 부모 역할의 긴장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남편의 지원에 대한 유형을 구분해 볼때, 애

정과 친밀감의 표현과 같은 정서적 지원은 여성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Williams, 1988; O'Neil & Greenberger, 1994), 도구적 지원의 효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Baruch와 Barnett(1986a)은 유치원 자녀와 국민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들을 면접한 결과, 취업모들은 남편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함에 따라 남편의 아버지 역할 수행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했으나, 취업모 자신의 생활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Ross와 Mirowsky(1988)는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취업모 자신의 우울 점수를 낮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수용자의 심리적 안녕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지고 있다(Shinn, Lehmann & Wong, 1984; Lawton, 1981). Shinn, Lehmann과 Wong(1984)에 의하면,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원하지 않은 충고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사생활 침해로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Lawton(1981)은 너무 많은 양의 지원으로 인해 수용자가 의존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노인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제공하여 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수용자의 적응을 해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누가 어떤 지원을 제공하느냐와 지원에 만족하느냐가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Goldsteen과 Ross(1989)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감을 사회적 지원 제공자와 지원유형에 따라 연구한 결과, 이웃과 친구들의 방문과 정보 교환 등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감을 감소시켰으나, 이웃과 친구들의 대리 자녀양육은 부담감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 지원의 상호호혜적 성격에 따라 자녀양육 지원을 받은 취업모들이 지원 제공자에게 자신들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구에서 취업모들은 직업 활동을 통한 물질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공식적 자녀양육 기관에 아이를 맡김으로써 정서적 댓가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였다. Heller, Swindle과 Dusenbury

(1986)는 수용자 측면에서 해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객관적인 양보다 수용자가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심리적 안녕의 효과를 더 잘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Barrera(1981)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분리하여 측정된 결과 관계망의 크기와 같은 객관적 평가보다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평가의 설명력이 더욱 크다고 하였다. 즉, 지원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점수는 낮았으며, 지원에 대한 만족 점수와 사회 관계망의 크기와 상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ath, et al., 1991, 재인용).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현재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 189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조건은 남편과 거주하며, 첫 자녀의 연령이 만 3세에서 6세사이인 취학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전일제 취업모이었다. 자녀의 연령을 제한한 이유는 학령전기 단계는 취업 역할과 부모 역할의 요구가 많은 시기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 2. 변인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심리적 안녕으로 이를 긍정적 정서와 생활 만족도의 두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Tiedje, Wortman, Downey, Emmons, Bienat와 Lang(1990)이 만든 안녕(well-being)척도와 생활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안녕척도는 지난 한달동안 기분이 좋았는지, 흥미 있고 즐거운 활동을 했는지, 한 일에 대하여 자랑스

롭게 생각했는지, 원하는 삶을 살았는지 등에 관한 9문항의 질문(6점척도)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 만족도 척도는 지난 한달동안 응답자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관하여 평정하도록 한 단일문항 도구(7점 척도)이다.

독립변인으로는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부모 만족도, 사회적 지원 변인과 그외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이 포함되었다. 결혼 만족도는 Bahr, Chappell과 Leigh(1983)의 도구(10문항, 5점 척도), 직업 만족도는 Janson과 Martin(1982)의 도구(5문항, 5점 척도), 부모 만족도는 Marini(1980)의 부모 만족도 척도(5문항, 4점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Collins, Dunkel-Schetter, Lobel과 Scrimshaw(1993)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지원을 물질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sup>3)</sup>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유무, 지원제공자와 지원에 대한 만족도(4점 척도)를 질문하였다.

위의 네가지 독립변인외에 취업모의 교육수준, 연령, 수입, 취업동기, 첫자녀의 성, 남편의 자녀양육 분담정도를 포함시켰다. 남편의 양육분담 정도는 단일 문항으로 '항상 부인'의 경우 1점, '보통 부인'이면 2점, '반반씩 분담'은 3점, '보통 남편'이면 4점, '항상 남편'은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 3. 연구 절차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의 조건에 부합되는 취업모 20명을 선정하여 1994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주일에 걸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4주간 실시하였다. 총 280개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그중 23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2%였으며, 자녀의

3) 사회적 지원 척도(Collins, et al, 1993)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 경우를 물질적 지원으로, 가사일 및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도구적 지원으로,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정보적 지원으로, 그리고 취업모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말할때 경청해준 사람이 있는 경우를 정서적 지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각 지원유형별 지원여부를 질문한후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제공자가 누구인지와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령이 적절하지 않은 21부, 편모가족인 경우 4부,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16부를 제외하고 18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 정도, 역할 만족도 및 사회적 지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원 유형별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심리적 안녕에 대한 독립변인들-취업모의 교육수준, 연령, 수입정도, 취업동기, 첫자녀의 성, 남편의 자녀양육 분담정도,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부모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본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먼저 연구대상들의 특성을 기술하였으며, 그 후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녕과 역할 만족도 및 사회적 지원 정도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연령은 부인의 경우, 52%가 31-35세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30.9세였다. 남편은 61%가 31-35세에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 연령은 33.4세였다. 또한 평균 월수입은 부인이 88만원, 남편이 123만원이었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92.1%, 남편이 96.3%로 대부분의 부인과 남편의 학력이 높은 편이었다. 남편과 부인의 직업을 직종별로 구분해 본 결과, 부인은 사무직(42.6%), 판매서비스직(27.1%), 전문직(22.3%)순이었으며, 남편은 사무직(47.6%), 관리직 (16.6%)순이었다.

자녀의 수는 1명인 경우가 54.0%, 2명인 경우가 44.4%로 대부분의 가족에서 자녀수가 2명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의 연령은 평균 4.2세였고, 막내자녀의 연령은 평균 2.3세였다. 한편, 첫 자녀는 결혼 후 평균 15.9개월이 되는 시기에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5.8년이었다.

취업과 관련된 특성 중 부인의 취업기간은 3년 이내가 45%였으며, 10년 이상된 경우도 16%를 차지하였다. 또한 결혼 전부터 계속 취업한 경우가 44%, 결혼이나 자녀출산으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직업을 갖게 된 경우도 약 34%를 차지하였다. 취업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필요라는 응답이 약 35%,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약 31%였다.

#### 2. 심리적 안녕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중 긍정적 정서 차원 점수(가능한 점수범위: 9-54점)를 보면, 27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고한 응답자가 전체의 43.9%, 28-36점까지의 중간 점수를 보고한 경우는 31.3%, 37-54점까지의 높은 점수를 보고한 응답자가 25.4%를 차지하였다. 평균점수는 29.97점, 표준편차는 8.37점이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긍정적 정서는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 만족도(가능한 점수범위: 1-7 점)는 불만족을 나타내는 1점에서 2점까지의 분포가 3.7%인 반면에, 대체로 만족을 나타내는 4점에서 매우 만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7점까지가 대다수(89%)를 차지하였다. 평균점수는 4.64점, 표준편차는 1.05점이었다. 따라서 취업한 어머니들은 대체로 만족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역할 만족도

취업모의 역할 만족도 중 결혼 만족도 점수(가능한 점수범위: 10-50점)는 25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고한 응답자는 19명으로 전체의 10.1%에 불과한 반면, 26점에서 40점까지의 중간정도가 66.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4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고한 응답자도 44명으로 23.3%나 되었다. 평균

점수는 34.22점, 표준편차는 6.90점이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결혼 만족도는 중간이상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직업 만족도 점수(가능한 점수범위: 5-25점)는 만족도가 낮은 10점 이하의 분포는 8명으로 4.2%인 반면, 11점에서 20점까지의 중간정도가 82.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2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 응답자도 25명으로 13.2%가 되었다. 평균점수는 16.18점, 표준편차는 3.30점이었다. 따라서 취업모 대다수는 중간 이상의 직업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부모 만족도(가능한 점수범위: 5-20점)는 6점에서 10점까지의 분포가 11명으로 5.8%에 불과한 반면, 11점에서 13점까지의 점수는 18.5%였으며, 14점에서 16점사이는 37.6%를 차지하였다. 또한 17점에서 20점까지의 높은 점수가 38.1%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15.28점, 표준편차는 2.61점이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부모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4.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전체 취업모 중 약 46%를 차지하였으며,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위한 직접적 지원(66%)과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 지원(51%)은 과반수 이상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의 느낌이나 의견을 누군가가 경청해 준 경우는 약 90%를 차지하여 취업모는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모에게 도움을 준 지원제공자를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물질적 지원은 주로 남편(43.0%)과 친정어머니(27.9%), 이웃(23.3%)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적 지원은 남편(40.8%)과 시어머니(29.6%), 친정어머니(28.0%)로부터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보적 지원원은 주로 이웃(27.8%)과 남편(25.8%) 및 친구와 직장동료(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은 주로 남편(50.3%)과 친구(27.8%), 직장 동료(27.2%) 및 친정어머니(22.5%)로부터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지원의 양은 물질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

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 각 각을 받았는지를 질문하여 각각의 지원유형에 따라 받았을 경우는 1점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0점을 주어 네가지 지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2.7%이었고, 한가지 유형의 지원을 받은 경우 15%, 두 세가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약 62%이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지원을 다 받은 경우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2.52점, 표준편차는 1.06점이었다. 따라서 취업모 대다수는 한가지 이상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1〉참고), 사회적 지원을 받은 대다수 응답자들은 모든 지원유형에서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일단 지원을 받게 되면, 취업모들은 그 지원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지원유형	점수*	빈도(%)
물질적 지원 (N=86)	1	0( 0.0)
	2	6( 7.0)
	3	38(44.2)
	4	42(48.8)
도구적 지원 (N=125)	1	3( 2.4)
	2	6( 4.8)
	3	52(41.6)
	4	64(51.2)
정보적 지원 (N=97)	1	1( 1.0)
	2	3( 3.1)
	3	58(59.8)
	4	35(36.1)
정서적 지원 (N= 169)	1	3( 1.8)
	2	2( 1.2)
	3	97(57.4)
	4	67(39.6)

\* 1 : 매우 불만족 2 : 약간 불만족  
3 : 약간 만족 4 : 매우 만족

다음으로 지원유형별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 대하여 부분 상관계수<sup>4)</sup>를 산출하였으며(〈표 2〉참고), 네가지 지원 유형별 만족도는 심리적 안녕의

〈표 2〉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 각 차원간의 부분 상관계수

지원유형별 만족도	긍정적 정서 차원	생활 만족도 차원
물질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408 **	-.082
도구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352 *	.091
정보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344 *	.314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428 **	.429 **

\* P<.05 \*\* P<.01

긍정적 정서 차원과 모두 상관이 있었으나, 특히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 정서 차원과 강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 만족도 차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것은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이었다. 따라서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 심리적 안녕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의 두 차원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취업모의 교육수준, 연령, 수입, 취업동기, 첫자녀의 성, 남편의 자녀양육 분담정도,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부모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이다. 취업모의 교육수준을 교육받은 연수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취업동기와 첫자녀의 성은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처리하였다. 취업모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각 경우에 사례수의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sup>4)</sup>. 독립변인간의 상관을 산출하였으며, 중다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변인은 발견되지 않아 선정된 독립변인을 모두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열가지 변인 가운데 결혼 만족도( $\beta = .43$ ), 직업 만족도( $\beta = .26$ ), 취업모의 연령( $\beta = .14$ )이 취업모의 긍정적 정서 차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

〈표 3〉 심리적 안녕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긍정적 정서 차원		생활 만족도 차원	
변 인	Beta	변 인	Beta
1. 결혼 만족도	.43 ***	1. 결혼 만족도	.35 ***
2. 직업 만족도	.26 ***	2. 남편의 양육분담	.15 *
3. 취업모 연령	.14 *	3. 직업 만족도	.14 *
R <sup>2</sup>	.31	R <sup>2</sup>	.23
F	28.02 ***	F	18.04 ***

\* P<.05 \*\*\* P<.001

4) 지원유형별 만족도간의 상관이 높았으므로 유형별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의 각 차원에 대한 고유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5) 지원유형(물질적, 도구적, 정보적, 정서적 지원)별 지원 여부를 묻고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유형별 지원을 받지 않은 대상의 경우 만족도가 산출되지 않았다.

졌다. 이 결과는 취업모가 결혼생활과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취업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하여 심리적 안녕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취업모의 긍정적 정서 차원을 31%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고).

한편 생활 만족도 차원에서는 결혼에 만족( $\beta = .35$ )할수록, 남편의 자녀양육분담( $\beta = .15$ )이 많을수록, 그리고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beta = .14$ )가 높을수록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취업모의 생활 만족도를 23%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고)

이상의 분석결과를 연구문제와 관련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역할 만족도 중 부모 만족도를 제외하고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는 심리적 안녕의 긍정적 정서 차원과 생활 만족도 차원 모두에서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모가 받는 사회적 지원의 양은 심리적 안녕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 유형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는 긍정적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였으며, 특히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도구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보다 긍정적 정서와 더 강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와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을 설명하는 변인은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는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취업모의 연령이었으며, 생활 만족도 차원에서는 결혼 만족도, 남편의 자녀양육 분담정도, 직업 만족도로 밝혀졌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업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이 어떠한지를 긍정적 정서 차원, 생활 만족도 차원의 두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고,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역할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안녕의 긍정적 정서 차원과 지원유형에 따른 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물질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도구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보다 긍정적 정서 차원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해석을 해 본다면, 본 연구의 취업모들은 가족주기상으로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에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에 있고, 경제적 이유로 취업한 경우가 약 43%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집단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물질적 지원이 주어졌을 때 만족도가 높고, 이에 따라 심리적 안녕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빈번히 경험하는 것은 측정하는 종속변인의 차원이 정서 요인이므로,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이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취업모 집단은 많은 역할로 인한 갈등이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때, 주위의 정서적 도움은 이런 갈등을 희석시켜 특히 긍정적 정서 차원의 집수를 높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생활 만족도 차원에 있어서는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경청해 주는 정서적 지원에 대해 만족할 경우 심리적 안녕이 증진된다는 사실을 사회적 지원의 기능과 연관지어 논의해 보면 타인의 정서적 지원은 자신의 가치와 적절성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아 존중감이 상승하여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이 증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Shumaker & Brownell, 1984).

한편, 심리적 안녕의 두가지 차원 중 생활 만족도는 긍정적 정서 차원보다 과거의 축적적 경험에 대한 변인임을 고려해 볼 때, 물질적·도구적·정보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지원을 받을 당시의 정서상태는 고양시킬 수 있을 지라도, 도구적 지원을 받을 경

우, 다시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활 만족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심리적 안녕의 두가지 차원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진 반면, 사회적 지원의 양은 심리적 안녕과 관계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평가가 심리적 안녕에 더욱 설명력이 있는 변인이라는 Barrera(198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Nath, et al., 1991, 재인용). 또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도 심리적 안녕의 차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지원을 많이 혹은 적게 받았는지보다는 주어진 지원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와 같은 평가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지원의 유용성은 변화될 수 있으며, 적절한 도움이 제공될 경우에만 취업모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심리적 안녕이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원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취업모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형태 및 유형을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변인이 긍정적 정서 차원과 생활 만족도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하위 종속변인 별로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긍정적 정서 차원을 설명하는 변인

긍정적 정서 차원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에서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 및 취업모의 연령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가 결혼생활과 직업에 만족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더 빈번히 경험한다는 것이다.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빈번히 경험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Tiedje와 동료들(199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역할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먼저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결혼 만족도는 전반적인 결혼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로서, 결혼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취업모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체가 일치할수록 결혼에 더욱 만족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긍정적 정서를 더 빈번히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혼에 대한 기대에 부합되는 정도는 결혼 만족도에 국한되지 않고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모 만족도는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이 높아진다는 Umberson(1989)의 결과와 부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덜 우울하다는 Cleary와 Mechanic(1983)의 결과와 상치되는 것이다.

이같은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이유는, 연구 대상의 범위와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부모기와 심리적 안녕을 다루는 연구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부모라는 연구대상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McLanahan & Adams, 1987). 즉, Umberson(1989)의 연구는 연구대상이 18세 이상 성인 중 부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혼부모, 이혼한 경우 및 사별에 의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모두를 포함시켜 연구하고 있다. Cleary와 Mechanic(1983)의 연구도 취업여성 집단을 결혼 상태에 따라 세분화시키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의 대상을 만 3세에서 6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추측된다.

두번째 이유는, 본 연구 대상의 부모 만족도 점수 분포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부모 만족도의 분포경향은 만족한 점수방향으로 편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분포의 비정상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편포경향은 연구대상 취업모가 공적 자녀양육 지원체계인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소수 혜택받은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세제, 직업만족도는 긍정적 정서 차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본 연구대상 취업모는 직종이 사무직, 판매·서비스직과 전문직 종사자로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였으며, 이들의 취업기간은 1년 미만에서 10년이상까지 편차가 심하였고, 결혼과 자녀출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도 33.8% 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 만족도는 중간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들은 직업에 만족할수록 긍정적 정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 확장을 의미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자원의 증가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같은 사회·심리적 자원이 함께 증가함으로써 만족도가 상승하여, 궁극적으로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에 만족한다는 것이 일의 생산성이나 능률과 같은 일 자체에 긍정적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정신 건강 면에서도 부가적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연령과 긍정적 정서의 관계는 취업모의 가족 생활 주기와 연관시켜 해석할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취업모는 가정에서의 요구가 많아 역할간 갈등으로 심리적 안녕이 낮을 수 있으나, 자녀가 커가면서 그들의 상황에 적응이 이루어져 심리적 안녕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취업모들이 자녀의 요구가 많은 시기를 인내하여 잘 극복하면, 다음 시기에는 심리적 안녕이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자녀양육 지원과 아동 보육시설의 설립 및 출산휴가 제도의 확대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박숙자, 1990). 또한 취업모 자신도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를 유도하고 주위의 지원을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기숙, 1994).

## (2) 생활 만족도 차원을 설명하는 변인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을 이해하는데 있어 긍정적 정서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역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생활 만족도 차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결혼 만족도, 남

편의 자녀양육 부담정도, 직업 만족도 변인이 유의하게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취업모가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남편이 자녀양육을 더 많이 부담할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Hirsch와 Rapkin(198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생활 만족도 차원을 설명하는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결혼 만족도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한 여성과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에는 결혼 만족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Cleary와 Mechanic(1983)의 연구와는 상치되는 결과이다.

결국 생활 만족도 차원에서도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가 유의한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이 증진된다는 사실은, 여성이 취업을 하여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장하더라도, 만족한 결혼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따라서 만족한 결혼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 및 역할분담,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 개발을 위한 부부관계 증진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전문가들의 실제적인 중재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이 높다는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구조상 여성의 취업상황 및 조건은 불평등하고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가운데서도 직업 만족도는 취업모들의 행복에 중요 변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정책적으로 취업모의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의 확장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본다면, 직업에 불만족하여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이 낮은 경우, 그들이 가족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리라고 보기 어렵고, 이같은 영향은 남편과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모성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취업에 따른 사

회구조적 악조건을 개선시킴으로써 작게는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전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많을수록 생활에 만족한다는 결과는 Ross와 Mirowsky(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자녀양육 분담실태를 보면, 항상 및 보통 부인이 하는 경우가 69%정도이며, 반반씩 분담하는 경우는 불과 27%이며, 보통 남편이 하는 경우도 4.3%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 취업모들은 남편이 참여할수록 생활에 만족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남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의 관련 변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시도된 연구로서, 취업모의 역할 만족도의 측면에서 이해하려 하였다. 점과 사회적 지원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시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은 추후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지원의 양에 관한 측정상의 문제로서, 과연 지원의 양이 지원 유형별 지원 여부에 대한 산출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Feiring, Fox, Jaskir와 Lewis(1987)는 지원 유형의 합으로 지원의 양을 계산하는 것은 특정 지원원으로부터의 지원 유형과 결과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지원 유형의 효과를 비교하여 지원 유형을 세분화시켜 지원의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즉, 지원 유형별로 '예'인 경우 1점, '아니오'인 경우 0점으로 점수화하는 방식은 같은 지원 유형일지라도 다양한 지원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원의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고 지원의 양이 계산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목적에 맞는 지원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역할 중 아내 역할, 직업 역할, 부모 역할로 제한시켰으나 이들 역할 외에도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성적(sexual) 역할, 오락적 역할, 치료적 역할, 친족 관계 유지 역할과 그에 따른

만족도가 추후연구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상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취업모를 중심으로 선정되어 졌다는 점에서 취업모 전부에게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1992년 통계에 따르면, 25-34세 취업여성의 0-5세 자녀수는 129만 1,522명인데 비해 보육시설 수는 4,513개로 보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자녀수의 비율은 9.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때(여성개발원, 1994), 추후 연구는 비공식적 대리 양육자에게 자녀를 맡기는 취업모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김경동, 이홍구와 신도철, 한국인의 가치의식과 삶의 질. 이만갑 교수 회갑기념 논총: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1), 1983, 461-499.
- 2) 김명숙, 한국인의 삶의 질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1.
- 3) 김수진, 여성의 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 4) 김정희(역),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서울: 대광문화사, 1991.
- 5) 노유자,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8.
- 6) 박숙자, 취업모를 위한 탁아 제도 연구.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1990, 352-383.
- 7) 서동인, 맞벌이 가족의 부모자녀관계. 서울특별시·한국 가족학 연구회 가정복지 제2회 세미나 자료집, 1991, 67-102.
- 8) 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여성개발소식, 15, 1994, 23-24.
- 9) 이기숙, 맞벌이 가족의 여성, 부부 그리고 자녀.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 5, 1994, 61-91.
- 10) 이기영,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

- 한가정학회지, 22(3), 1984, 111-127.
- 11) 이숙현,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 관계의 변화. 가족학 논집 2, 1990, 1-27.
  - 12)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와 조재순, 기혼 취업 여성이 지각하는 가정·직업 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209-223.
  - 13) 장재정,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 14) 전영자,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323-343.
  - 15) 정혜정,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16) 진미정,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 17) 최규련, 맞벌이 가족의 부부관계. 서울특별시·한국 가족학 연구회 가정복지 제 2 회 세미나 자료집, 1991, 67-102.
  - 18) 현오석,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5.
  - 19) Andrew, F. & Withey, S.,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1976.
  - 20) Aneshensl, C. S., Frerichs, R. & Clark, V. A., Family roles and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1981, 379-393.
  - 21) Bahr, S. J., Chappell, C. B. & Leigh, G. K., Age at marriage, role enactment, role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983, 795-803.
  - 22) Baruch, G. K. & Barnett, R., Consequence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Parents' role strai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5), 1986a, 983-992.
  - 23) Baruch, G. K. & Barnett, R.,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1986b, 578-585.
  - 24) Benin, M. H. & Nienstedt, B. C., Happiness in single- and dual earner families: The effects of marital happiness, job satisfaction and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1985, 975-984.
  - 25) Bryant, F. B. & Verloff, J.,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1982, 653-673.
  - 26) Choi, H. K., *The process of caregiving stress among Korean caregivers for the elderly*. Unpublished Manuscript,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92.
  - 27) Cleary, P. D. & Mechanic, D., Sex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arried peo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1983, 111-121.
  - 28) Collins, N. I., Dunkel-Schetter, C., Lobel, M. & Scrimshaw, S. C., Social support in pregnancy: Psychosocial correlates of birth outcomes and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993, 1243-1258.
  - 29)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1984, 542-575.
  - 30) Feiring, C., Fox, N. A., Jaskir, J. & Lewis, 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infant risk statu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987, 400-405.
  - 31) Goldsteen, K. & Ross, C. E.,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1989, 504-526.
  - 32) Guelzow, M. G, Bird, G. W. & Koball, E. H.,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 caree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991, 151-164.
  - 33) Hanson, S. L. & Sloane, D., Young childre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992, 799-811.



- 34) Heller, K. H., Swindle, R. W. & Dusenbury, L., Component social support processes: Comments and integr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1986, 466-470.
- 35) Hirsch, B. J. & Rapkin, B. D., Multiple roles, social networks, and women'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986, 1237-1247.
- 36) Hughes, M.,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formerly married.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1989, 463-481.
- 37) Janson, P. & Martin, J., Job satisfaction and age: A test of two views. *Social Forces*, 60(4), 1982, 1089-1102.
- 38) Keith, P. M. & Schafer, R. B.,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44, 1980, 483-488.
- 39) Keith, P. M. & Schafer, R. B.,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s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983, 877-884.
- 40) Kessler, R. C. & McRae, J. A.,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982, 216-227.
- 41) Lawton, M. P., Community supports for the aged. *Journal of Social Issues*, 37(3), 1981, 102-115.
- 42) Marini, M. M., Effect of the number and spacing of children on marital and parental satisfaction. *Demography*, 17(3), 1980, 225-242.
- 43) Moen, P. & Dempster-McClain, D. I., Employed parents: Role strain, work time, and preferences for working l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987, 579-590.
- 44) Nath, P. S., Borkowski, J. G., Whitman, T. L. & Schellenbach, C. J., Understanding adolescent parenting: The dimensions an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Family Relations*, 40, 1991, 411-420.
- 45) O'Neil, R. & Greenberger, E.,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994, 101-118.
- 46) Repetti, R. L., Matthews, K. A. & Waldron, I., Employment and women's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4(11), 1989, 1394-1501.
- 47) Ross, C. E. & Mirowsky, J.,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1988, 127-138.
- 48) Ross, C. E., Mirowsky, J. & Goldstein, K.,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ealth: The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0, 1059-1078.
- 49) Ross, C. E., Mirowsky, J. & Huber, J., Dividing work, sharing work, and in-between: Marriage patter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983, 809-823.
- 50) Scott, J. & Alwin, D. F., Gender differences in parental strain.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1989, 482-503.
- 51) Shinn, M., Lehmann, S. & Wong, N. W.,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1984, 55-76.
- 52) Shumaker, S. A. & Brownell, A., Toward a theory of social support: Closing conceptual gaps.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1984, 11-36.
- 53) Tiedje, L. B., Wortman, C. B., Downey, G., Emmons, C., Bienat, M., Lang, E., Women with multiple roles: Role-compatibility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0, 63-72.
- 54) Thoits, P. A.,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982, 145-159.
- 55) Umberson, D.,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989, 999-1012.
- 56) Warr, P. & Parry, G., Paid employment and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1(3), 1982, 498-516.